

# 기쁨과 행복한 삶... “나는야 늙은 농부”

아침을 열며



정연권  
색향미야생화연구소장

뜨거웠던 여름이 갔는지 이른 아침에는 시원하여 국화 돌보는 시간이 수월하다. 밤새 잤는지 대화를 나눈다. 유인 연출하고 물을 주면 춤추며 반긴다. 날마다 마음이 즐겁다. 꽃을 보면 내가 좋지 꽃이 좋은 게 아니다. 꽃은 그때와 조건에 따라 자라고 꽃을 피운다. 거기 맞춰 돌보며 위안과 기쁨을 얻는다. “꽃 한 송이 이상 신비는 없다”라는 말을 새겨 본다.

샤인머스켓 포도가 나왔다는 현수막이 보였다. 국화 작업 마치고 바로 달려 갔다. 안주인은 “일 년 만에 뵈네요” 벌써 일 년이 지났구려 허허 웃는다. 잘 익은 포도송이를 내민다. 현장농장에서 맛볼 수 있는 특권이다. 싱그럽고 달콤했다. 단맛이 온몸에 퍼지니 행복했다. 문자가 올린다. 황금배도 수확이 시작됐다고 한다. 배 과수원으로 갔다. 선별 포장상 상자에서 피땀의 성과물을 보았다. 사과배라 불리는 황금배는 시원하면서 달달한 맛이 일품이다. 국화밭과 포도 하우스와 배 과수원에서 참맛을 즐기고 기쁨과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농사는 만사의 뿌리다. 부지런하고 선한 농부들 덕분에 귀한 먹거리가 생산돼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다. 농부는 생명의 파수꾼이다. 농부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사짓는 농부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농본주의를 대변해 주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은 2024년 현재 90만명으로 전체 인구는 5000만명의 1.8%다. 90만명이 5000만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식량 자급률은 24%다. 외국에서 식량이 안 들어오면 하루 한 끼 정도 겨우 먹을 수 있는 비율이다.

농사지는 사람들을 ‘농부’, ‘농민’, ‘농

사꾼’, ‘농업인’ 부른다. 농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사용되는 맥락이나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 각각의 용어를 ‘챗GPT’ 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농부(農夫)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농사를 짓는 사람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농민(農民)’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좀 더 포괄적 표현으로 나타낼 때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농민은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현대에는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농사꾼’은 구어적이고 비 격식적인 표현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농부는 가족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농민은 사회적으로 직업의 한 부류로 구성된 사람들이다. 농사꾼은 비하적이며 자신을 낮출 때 쓰지만 전문가이다. 농업인은 농사 수지를 따지는 경영인이다.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주다.

필자도 지난 7월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다. 등록돼야 농사짓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구례지리산공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고 공농사를 짓는다. 8월에는 ‘구례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 가입해 농사지는 사람으로 정부 공인과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학석사 학위를 가졌다지만 농사에 적용은 무리가 있었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퇴임했으나 직접 하는 농사일은 서툴렀다. 30여 년간 야생화연구에 전념하며 지방 행정의 달인과 신지식인이 되었지만 농사와 무슨 상관인가. 야생화 특품화, 향수, 압화 등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농가들이 수습역 원을 별게하는 기술지도를 하였으나 의미가 없다. 국화 수천 점 재배하여 국화전시회를 하였지만 먹는 농사는 처음 짓는다. 다른 농사는 서툴러도 야생화 분야는 최고의 전문가라 자부하고 싶다.

농업, 농촌, 농부를 사랑해야 할 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다른 길을 걸

었다. 잘하려는 의욕으로 새벽부터 골목길을 누비고 국화전시회 등 분투했지만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중도하차 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버리니 세 가지 일이 생겼다. 그동안 연구했던 야생화를 인문과학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색향미야생화연구소’를 설립했다. 1인 연구소라 일하기 편안하다. 그동안 모은 자료와 경험들을 정리하고 심층 연구 분석한다. 옥잠화 향기 등과 조향(調香)하여 소박한 립스틱형 향수를 만든다. 상큼하고 달콤하면서 은은한 향기가 일품이다. 지인들을 만날 때 하나씩 주니 좋아한다. 나눔의 즐거움과 행복이다.

농부로서 새벽에 국화를 돌본다. 행사를 염두에 두지 않으니 마음 편안하다. 행사에 꽃이 피지 않을 때 스트레스는 필설로 형언 어렵다. 노심초사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다. 하늘이 주는 대로 거둬 나눠 주련다. 콩밭도 가끔 둘러본다. 무더위에 쭉쭉 자라니 대견하다. 내 밭에서 자라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또 ‘(주)플레이라움’ 회사에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입사했다. 플레이라움(PLayraum)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이 놀이터가 됩시다’ 뜻이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실한 회사다. 도시재생, 생태관광문화, 농산어촌 개발 등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보탬이 되도록 진력하고 있다. 내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주는 대표에게 고맙고 무한 감사하다.

새벽에는 농부이며 낮에는 연구소장, 전문위원 등 1인 3역이 즐겁다. 이제 농부가 자랑스럽다. 농업경영인보다 생명을 살리는 늙은 농부로 살고 싶다. 나눔과 베푸는 행복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 농부의 삶은 여유롭다. 돈을 벌려는 이기심도 잘하려는 욕심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과 조직의 시계가 아니라 자연의 시계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갈 데가 많다. 지리산이 찌렁 찌렁 울리도록 외치고 싶다. “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늙은 농부다”

## 社說

### 재선거 앞둔 공천잡음 지역 배신 아닌가

#### 유권자 선택으로 독선 막아야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가 점입가경이다. 경선과 공천 잡음에 탈당이 잇따르고 이합집산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사무를 담당할 대표를 뽑는 선거가 혼탁과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에 12명, 곡성군수 재선거에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당내 경선을 둘러싸고 잡음과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 한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전날 민주당의 공천에 반발해 탈당계를 제출했다. 곡성군수 예비후보도 경선 방식 등에 반발하면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로 돌아섰다. 민주당의 또 다른 곡성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단일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당도 공천 잡음으로 각종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 재선거가 치러지는 곡성과

영광 등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와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선거에 ‘전략 공천’이나 ‘밀실 야합’, ‘낙하산 인사’ 등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당이 시스템에 의한 공천에서 벗어나 ‘특정 후보를 위한 꼼수’로 공천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민주당의 현 주소다. ‘민주당 권리당원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당원의 비난도 서글픈 현실이다.

공천과정에서의 잡음과 탈당, 해체 모여가 현실화되는 것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훼손됐다는 의미다. 올바른 정당 시스템은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반칙을 범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냉철한 선택이다. 유권자를 무시하고 지역정서를 외면한 정당의 독선을 막는 것은 유권자에 주어진 힘이다. 분명한 것은 갈자루를 쥔 사람은 정당이 아니고 유권자다.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한 교권 추락

#### ‘교권보호법’ 기피 직업 못 막아

광주지역 초등 교사의 명예퇴직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에는 전체 퇴직 중 명예퇴직자가 60%를 넘기며 정년퇴직자보다 앞섰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무너진 교권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교사는 2019년 18명, 2020년 20명, 2021년 26명, 2022년 29명, 2023년 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있다. “학생이 틀린 문제를 맞혀줬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 “모닝콜을 해 아이를 깨워달라”는 요구 등 별의별 민원에 현장 교사들은 ‘참아내기’가 일상이다.

추락한 교권을 바로세우고자 만든 ‘교권보호 5법’도 현장과 괴리가 컸다. 국회는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1일 통과시켰다. 벌써 시행 1년을 넘겼다. 시행법에 따라 ‘학생 분리’ 조치와 ‘민원대응팀’이 생긴다고 해 교사들은 그간의 설움을 털어낼 줄 알았다. 현장 교사들은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 이를 적용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교권의 끝없는 추락에 한때 인기직업 1순위로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광주교대의 중도탈락자는 2019년과 2020년에 32명, 2021년에는 31명에 그쳤지만, 2022년 36명, 2023년에 47명으로 증가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하지만 미래 주역을 키워내는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해 위축된다면 제대로 된 인재육성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교권침해 현장에서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특히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사라져야 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모든 교육 구성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할 때다.



@jni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b@jnibo.com



### 서석대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포하는 비상 조치다.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해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한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당한 의도로 활용하면 독재를 조성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시킨다. 역사속에서 독재 정권이 반대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계엄령은 현 정부의 안보라곤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줄임판 총안과 출신으로 군 정보·첩보 등 핵심 요직을 맡아왔다.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국군방첩부(옛 기무사) 사령관, 777사령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다. 탄핵 위기때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당과 대통령실은 탄핵, 계엄을 세뇌 시키는 정치 선동이자 과담이라며 반겼다. 21세기에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발’ 계엄령은 구체적인 근거나 실체가 없다. 도를 넘어섰다. 그래도 귀가 솔깃하다. 분명한 사실은 있다. 계엄은 공멸로 가는 길이다.

요즘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계엄령이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근거는 현 정부의 안보라곤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줄임판 총안과 출신으로 군 정보·첩보 등 핵심 요직을 맡아왔다.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국군방첩부(옛 기무사) 사령관, 777사령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다. 탄핵 위기때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당과 대통령실은 탄핵, 계엄을 세뇌 시키는 정치 선동이자 과담이라며 반겼다. 21세기에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발’ 계엄령은 구체적인 근거나 실체가 없다. 도를 넘어섰다. 그래도 귀가 솔깃하다. 분명한 사실은 있다. 계엄은 공멸로 가는 길이다.

####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계엄령은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게 최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권 장악과 유지 수단이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때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마지막 계엄령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보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헌정질서를 중단시켰다. 시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했다. 그 해 우리는 봄을 빼앗겼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계엄’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한 것은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bo.com m.jni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bo.com